

급변하는 환경 속 '리질리언스' 역량 키워 혁신 금융 도약

(회복 탄력성)

포스트 코로나 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비은행 부문 확대...성장 동력강화 전사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혁신 금융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 선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의 새로운 비전으로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을 내세웠다.

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위기를 겪었지만, 올해도 역시 지난해 못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금융그룹은 빅블러(Big Blur)·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시대 속에서 무한경쟁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극복 '리질리언스' 강조

손 회장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이며, 위기의 끝에는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생존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연중 비상경영 체제



지난 8일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타운홀 미팅'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좌)과 자회사 임직원들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라는 마음이짐으로 각오와 열정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리질리언스(Resilience)'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질리언스란 물리학이나 생태학에서 사용해진 '회복 탄력성'이란 뜻으로, 경제적 타격 이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는 "외부 충격으로 수축한 스프링이 강한 활력을 통해 원래보다 더 강하게 튀어 오르듯 급변하는 외부 흐름을 민첩하게 파악해 리스크를 걸러내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혁신적인 기업만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비대면)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권 내에서도 언택트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일상으로 퍼져 이제는 변화가 필수가 됐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그룹 경영목표와 6대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그룹이 획기적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6대 경영전략 추진

우리금융이 내세운 6대 경영전략은 ▲그룹 성장기반 확대 ▲디지털 넘버원 도약 ▲경영효율성 제고 ▲브랜드 및 E

SG경영 강화 ▲리스크·내부통제 강화 ▲글로벌 사업 선도 등이다.

손 회장은 경영전략 중 첫번째로 그룹 내 성장기반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행권내 자금이 비은행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비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했는데, 아직까지 증권·보험 비은행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지 못한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약하다는 평이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환경이 위축돼 단기간 내에 규모있는 M&A(인수합병)는 쉽지 않겠지만 그룹 내 비어있는 비은행 부문 확대를 모색해 그룹성장을 위한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업 내에서 언택트가 일상화한 만큼 디지털 전환도 이어간다.

손 회장은 "올해는 수많은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의 벽을 허물고 우리와 혁신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은 금융회사제1의 고객 접점이며, 전사적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혁신과 디지털 넘버원 금융그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8일 그룹 '디지털 혁신 타운홀 미팅'에서 임직원들에게 빅테크 수준의 파격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디지털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5월 우리금융은 그룹 디지털 비전으로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이니셔티브(Digital First, Digital Initiative)'를 내세우면서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손 회장은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다.

손 회장은 "디지털 넘버원이 되려면 소속을 불문하고 모든 임원들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며 "내규나 법률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빅테크 수준으로 파격적인 해결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위한 ESG경영 강화도 이어간다.

손 회장은 "ESG경영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한국형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금융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을 선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명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은행 대출 연체율 '사상 최저 수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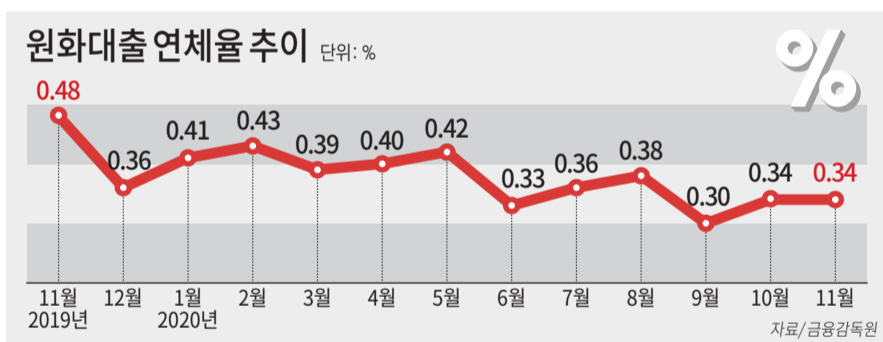
작년 11월 말 국내銀 원화대출 연체율 신규연체 발생액 1조... 전월대비 감소 연체채권 정리규모, 전월 대비 증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4%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 동월 말 대비로는 0.14%포인트 하락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차별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



과 같은 0.43%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28%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오른 0.46%다. 연체율은 중소기업이 0.01%포인트 상승한 0.62%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과 같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계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같은 0.16%며,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42%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연말정산·소득 공제 노하우 알려드려요"

카카오뱅크, 맞춤형 금융 가이드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의 연말정산을 돕는 가이드와 편의 기능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금융 가이드는 고객층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했다.

기초 연말정산 가이드는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다. 원징징수와 과세표준 등 관련 용어 풀이와 도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주택공제 등 3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각 항목에 맞게 쟁길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를 위한 소득 공제 노하우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뱅크미니(mini)를 사용하는 자녀가 있다면 가족 합산 공제 대상이다. 역시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콘텐츠들은 카카오뱅크 앱과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1월에는 '카카오뱅크 상담봇'도 전용 콘텐츠를 선보인다. 매년 고객들이 많이 문의하는 연말정산 제출 서류와 발급 방법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말정산 키워드만을 입력해도 소득공제용 이용내역서와 상환증명서 등 관련 서류 발급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동영상 안내와 발급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했다. /안상미 기자

한은 디지털 화폐박물관 개관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박물관을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먼저 화폐박물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했다.

일반 국민들이 화폐박물관의 전시관과 전시물을 온라인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했으며, 화폐박물관 8개 전시관을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고화질 3D영상으로 재현했다. 화폐도안과 상평통보를 주제로는 3~5분 내외의 동영상 2편을 제작했다. /안상미 기자

"고객중심 디지털 금융 선도은행 목표"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결의 다져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 화상 개최

NH농협은행은 14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2021년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고객중심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권준학 은행장을 비롯한 전국의 임직원들은 화상으로 참석해 넥스트노멀(Next Normal)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고객과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 경쟁우위 지속 확보 ▲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수익 제고형 성장구조 조성 ▲환경·사회·고객 가치 창출 등 각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권 행장은 "올 한해는 농협은행이 신

/안상미 기자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14일 전국의 임직원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라며 "임직원 모두가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선도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KB국민銀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록 이벤트'

총 1000명에 5000 포인트리

KB국민은행은 2월 말까지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규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보내고자 할 때 지정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이벤트 기간 중 신규 등록한 고객이다. 이 중 미화(USD) 500불 이상 해외 송금한 고객을 추천해 총 1000명에게 5000 포인트리를 증정한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신규 등록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 할인과 환율우대 30%도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저렴한 해외송금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이번 신년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외환거래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